

REVIEW

December 2022 | 남웅 미술비평가

Page 1 of 2

PUBLIC ART | 퍼블릭아트

안개의 논리

이기봉

11.17-12.31

Where You Stand

국제갤러리 서울 K1, K2, 부산

리뷰



전시 전경 국제갤러리 부산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자욱함의 지지체

수면과 지표, 거리와 숲속에 드리운 안개는 평소보다 무거운 정조를 유발하며 익숙한 풍경을 낯설게 만든다. 안개는 세계를 가리며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우지만, 분명하게 지각하는 것은 다름 아닌 비어 있던 공간. 평상시엔 인지하지 못했고 인지할 필요가 없는 공간이다. 다시 말해 안개는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지만 부재가 존재해 왔음을 확인시켜주는 매질로서 '밤새 머물지 못한 영혼들'을, 상처받은 영혼들을 감싼다. (허형만의 시 <안개>의 구절) 하여 안개는 어둠과 달리 시야를 무력하게 만들지 않는다. 사물을 인지하고 길을 찾기 위해 눈은 안개 속에서 시각의 축을 세운다. 비인지적 요소를 인지하는 감각이라는 점에서 안개는 시적 정조를 일으키는 소재로, 사건을 미궁으로 만들어 길을 찾아야만 하는 미장센의 도구로 활용되어왔다. 하여 안개는 소설과 영화, 미술 등 분야를 막론하고 적지 않게 사용되어왔는데, 단적으로 형상을 몽개면서도 분위기를 강조하는 장치로 활용되어온 스푸마토(Sfumato) 기법은 비미술 종사자에게도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기봉은 가장 적극적으로 안개를 소재로 활용하는 작가 중 하나다. 그는 풍경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고 정조를 부여하는 부수적 소재에서 나아가 안개 자체의 표현을,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의 물리적 효과를 가능케 하는 형식과 지지체를 시각예술의 형식으로 조영

해왔다. 안개가 자욱한 화면은 안개의 효과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데 골몰했을 과정을 함의한다. 안개효과를 위해 그의 작업은 두께와 공간을 확보한다. 간혹 유리 벽 안에 공간을 두고 가운데 나무 주위로 안개효과를 직접적으로 주기도 했지만, 매체적으로는 안개를 재연하는 무대 형식의 삼차원 공간보다 이를 압축한 듯한 평면작업이 좀 더 흥미롭다. 자욱해 보이는 안개는 평면의 납작한 공간에 용적을 버려놓는다. 안개가 피어오르기 위해서는 틈새의 공간이, 말 그대로 비어 있는 사이의 장소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평면으로 펼쳐지는 것은 어느 입체 오브제보다 긴장감을 드리운다.

안개가 발생할 틈새는 평면성을 절개하고 용적을 키우면서도 삼차원 오브제보다는 반평면적 평면성을 고수한다. 평면도 오브제도 배타적으로 정하지 않는 작업이 품은 역설이다. 이는 공간에 드리우고 허공을 채우며 부재가 존재함을 확인시켜주는 안개의 이중적 속성에도 공명한다. 적어도 안개 주위로 떠오르는 시적 정조들은 예의 틈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양 단 어디에도 머무르지 못한 채 부유하는 동안 언어는 시가 된다.

작가 이기봉은 캔버스에 물감으로 나무와 수풀, 습지를 그린다. 그리고 그 위에 폴리우레탄 섬유를 입혀 뿌연 효과를 구현한다. 아니, 순서는 다시 배치될 필요가 있다. 반투명한 천은 캔버스와 1cm가량의 틈을 두고 안개의 뿌연 장막 효과를 낸다. 회고무레 비치는 반투명

베일 뒤 장면은 수풀과 나무, 습지와 연못으로 떠오른다. 천 표면에 남긴 붓자국은 안개간 화면에 심도를 더한다. 안개가 무엇을 가리는지 묻는 질문은, 외려 안개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 가리는 것인가 되물으며, 사물을 가리기 위해 등장하는 안개 자체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물으며 틈을 낸다.

관람객은 베일에 비치는 배경면을 지각할 수 있지만 반투명하게 가려져 판명하게 인지할 수 없다. 캔버스 위에 다른 천을 틈을 두고 올리는 층적의 작업과 함께 각각의 베일 앞뒤로, 더불어 배경 면으로 가해지는 붓질은 평면의 심연을 암시한다. 깊이의 실제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깊이를 암시하는 안개의 효과일 것이다. 안개는 사물을 가리지만 동시에 더듬어 드러낸다. 의미와 통념에 삼켜지지 않은 채 눈앞에 형상을 출현시킨다. 사물을 인식 틀에 삼켜지지 않도록 안개가 드리운 작업은 반대로 안개의 효과 자체를 소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안개의 분석적 방법론

14년 만에 국제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 <Where You Stand>에서 작가는 평면성에 기반하여 레이어를 포개어 평면의 심도를 높이고 안개의 속성을 시각화하는 방법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변주한다. 주목할 점은 안개 자체의 효과를 부각하는 장면이 이제 안개가 만드는 짙은 대기와 그림자의 효과를 재현적 표현의 범주에 머무

DECEMBER 2022

REVIEW

르지 않고 시각예술의 형식성으로 적극적 변환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Where You Stand’와 ‘Stand On Shadow’ 연작이 대체로 안개 낀 풍경을 재현적으로 부각하고 있다면, ‘Stand On Shadow-Black Mirror’와 ‘Black Mirror’ 시리즈는 반투명 스크린 위에 비정형의 화면을 조형하고, 물감뿐 아니라 레진과 실리콘을 사용함으로써 촉각성을 다변화한다. 예의 방법론은 안개가 드리운 풍경을 재현해 온 전형적 프레임에 허물지만, 화면을 구성하는 얼룩과 패턴들, 매끈한 레진의 스트로크와 스크린의 구멍들을 관통하여 빠져나오는 실리콘 링들은 화면에 음각된 요철의 방법론을 갱신하며 안개 낀 풍경을 재구성한다. 그동안 재현적 미장센으로 활용해온 안개가 일반적인 소재로 동원되었다면, 이번 작업에는 안개의 효과뿐 아니라 안개에 영향을 받아 변형된 풍경의 양태를 평면에 옮기는 방식을 부각하는 셈이다. 그것은 안개 낀 풍경이 어떻게 시각예술적인 지지체로 변환되고 절합되는가와 동시에 재현적 풍경이 성립되기 위해 수반되는 시각적 형식성을 탐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안개의 재현 ‘너머’를 표현하는 작업은, 역으로 재현적 풍경이 성립하기 ‘이전’의 원초적인 시각적 표현을 탐구하는 이중의 시간성을 담지하는 것이다.

자욱하게 안개가 드리운 시적 정조의 방법론은 줄곧 언어적 논리를 돌파 대상으로 삼아왔다. 작가는 루

드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의 『논리-철학논고(Tractatus Logico-Philosophicus)』(1921)를 소환한다. 이는 그에게 새로운 소재는 아닌데, 이미 과거에도 사각 유리 어항에 물을 채우고 같은 책을 유명하게 만들기도 한 바 있던 것이다. 이는 언어가 파고들 수 없는 자리를, 논리의 세계로 투입할 수 없는 풍경을 환기하는 환유적 장치로 기능한다.

작가는 평면작업에 문자를 직접적으로 동원한다. 반투명한 스크린 안쪽에 얼룩과 생체기처럼 남는 문자들은 내용을 부각하기보다 문자 자체가 얼룩처럼 안개를 이룬다. 말하자면 문자는 안개의 효과를 구성하는 지지체로 녹아드는 모습인데, 조금 빼딱하게 본다면 굳이 비트겐슈타인의 텍스트가 아니라도 문자의 형태가 가져오는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여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작가는 분석철학의 언어적 위상을,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이름을 소재로 동원하는 것은 아닌가. 분석철학은 안개의 대극으로 소환되어 긴장을 높이기 위한 도구의 차원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닌가. 작가는 철학과 철학자의 이름을 계속해서 소재로 사용하지만, 그 논리를 참고하여 시각 형식으로 연결 짓기보다 자욱한 안개의 모호함 속으로 형해화한다. 그간의 분석들 또한 치밀하게 짜이는 언어철학의 논리를 시각예술의 형식에 연결 짓기보다 언어가 결국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시인하는 비트겐슈타인의 문장을

재차 환기하는 수준에 머문다. 하여 안개처럼 자욱해지는 것은 안개를 재연하고 시각예술 형식으로 치밀하게 연결 짓는 이기봉의 작업보다도 ‘분석철학’ 자체는 아닌가를 의심한다. 안개의 자욱함이 드리우는 시적 감수성을 증언하기 위해 분석철학을 도구적으로 동원하되 안개적 효과에 힘을 실기 위해 안개처럼 뿌옇게 내버려두는 것은 아닌가 말이다.

오히려 반대로, 철저히 논리적 정합성을 구축해나가는 것은 안개의 재현적 효과를 철저히 형식화하는 작업은 아닐까. 작가는 안개효과와 장치들을 시각예술을 위한 형식성으로 도약시킴으로써 안개의 시각 예술적 논리를 보다 복잡하게 만든다. 이러한 역설은 안개를 수십 년 동안 다뤄온 작가의 성취에 기인할 터, 당장 그의 작업에서 분석철학의 세계관을 찾거나 요구할 필요가 없더라도 그의 방법론은 안개의 시각 형식을 다층적으로 변주함으로써 흐릿한 화면으로부터 명료한 의미를 찾고자 했던 분석적 태도에 근접한다. 이른바 안개의 정조에 하염없이 젖기보다 그 효과를 성립시키는 지지체와 방법론을 갱신하고, 안개가 내려앉은 풍경이 시각적으로 구성되는 양상을 시각예술의 문법으로 창안해가는 것이다. 이러한 작가적 면모야말로 언어의 한계와 무력함을 고백하기까지 언어의 의미 체계를, 언어의 물성을 치밀하게 사유했던 분석철학가의 시도에 공명한다고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 남웅 미술비평가



<Where You Stand D-1> 2022 캔버스에 아크릴릭, 폴리메스터 성유 186×186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133



<Where You Stand Green-1> 2022 캔버스에 아크릴릭, 폴리메스터 성유 186×186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리뷰